

국내 여성복업체의 입체재단 도입현황 분석 - 미시존 기성복 브랜드 중심으로 -

채수경* · 천종숙

삼성아트앤디자인인스티튜트 조교수*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의류환경학과 교수

1. 서론

'9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의류시장의 외형적 규모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국내 미시존 여성복 브랜드에서는 단품의 강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캐릭터성 보완의 두 가지 측면으로 시장구도를 형성하며 의류시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IMF 이후, 베이직 상품의 판매비중이 늘어나게 되자 정장에 트렌드를 반영하기보다는 단품에 트렌드를 반영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기획비중을 줄이고 보완반응의 비중을 늘리면서 인기 브랜드의 인기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카피가 늘어나게 되면서, 브랜드의 차별화가 없어지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미시존 여성복 브랜드에서는 브랜드 차별화에 대한 전략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 패션 기업들은 브랜드 차별화에 대한 해결책을 마케팅 혹은 디자인 적인 측면에서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디자인, 가격, 소재, 봉제의 질의 차별화가 거의 평준화된 현재의 패션 환경 상황에서, 고감도, 고품질을 선호하는 미시군의 시장 점유율은 옷의 착용감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고 본다. 옷의 착용감이란 디자이너의 감성과 봉제와 패턴이 종합되어 소비자를 만족시켰을 때만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봉제 산업이 낙후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나, 봉제의 질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아지고 있다. 또한 낙후된 봉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착용감 만족이라는 명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국내 패턴제작의 구조적 모순점 인식 및 해결방안의 모색임을 인식해야 한다.

패턴 제작법은 크게 평면재단법과 입체재단법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평면패턴만으로 패턴제작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입체재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기성복업체의 입체재단 도입현황과 패턴실 운영실태, 패턴제작에 대한 디자이너의 역할, 패턴사와 디자이너의 학력과 패턴실 운영방식과의 연관성을 조사함으로써, 패턴 제작 과정 시의 만족도와 문제점, 패턴제작 방식의 결정상황 및 저해요인 등을 파악하여 보다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터뷰와 설문지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입체재단의 사용여부에 따라 디자인실과 패턴실용으로 구분되어 1차 예비조사 후 수정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표 1, 참조) 인터뷰는 디자인실의 팀장급 이상이나 패턴실장을 대상으로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입체재단 사용여부의 파악, 설문응답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브랜드는 문헌을 통하여 브랜드 준별로 매출순위나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46개를 선정하였고 이중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27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에서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18업체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미시존 여성복 브랜드의 디자인실에서 팀장급, 혹은 5년차 이상을, 패턴실에서는 패턴 실장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1999년 4월 10일부터 5월 4일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총 36부의 설문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의 자료처리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패턴제작의 문제점 및 디자인실과 패턴실과의 견해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비교(Friedman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국내 미시존 여성복 브랜드 중에서 입체재단을 도입했다고 응답한 브랜드들은 전체의 33%로 나타났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했거나 사용정도가 저조한 브랜드를 제외한 진정한 의미의 입체재단도입이 이뤄진 브랜드는 22.2%로 나타났다. 이들 브랜드들은 대부분 1995년도 이후 출범된 브랜드들로, 입체재단을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보다 짧은 생산기간을 가지며, 1차 생산량보다 높은 보완반응 생산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비자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입체재단의 도입 시기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런칭 초기부터 사용해오고 있다고 응답했으며(83%), 도입 초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패턴제작에 걸리는 시간이 평면재단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적절한 마케팅 구입이 어렵다는 것을 거론하였으나 경영자 인식부족으로 인한 의사 결정 지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체재단은 아방가르드한 스타일 혹은 특이한 디자인의 패턴을 제작할 때 특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피팅 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회사의 패턴에 대한 만족도는 입체재단을 사용하는 브랜드에서는 패턴사와 디자이너의 만족도가 같으며,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입체재단을 도입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도입한 브랜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패턴실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디자인실의 만족도가 훨씬 낮게 나타났다.

평면재단으로 제작된 패턴에 대한 불만족한 부분도 디자이너와 패턴사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디자이너는 어깨선과 암홀 부위, 전후 벨런스 및 실루엣, 바디스(bodice)의 피팅에 불만족을 표명했고, 패턴사는 드레이프(drape)진 디자인, 입체적인 곡선, 전반적인 입체감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입체재단이 자사 제품생산에 적당한 방법이며, 피팅이 향상되며, 샘플의상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패턴제작 시간이 많이 걸려 평면재단의 사용정도가 입체재단보다 많다고 응답하였다.

입체재단을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들은 현재의 패턴생산방식에 만족하지 않으며, 입체재단

을 사용하면 착용감이 좋은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입체재단에 익숙하지 않으며, 입체재단을 습득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만약 입체재단법이 도입된다면, 디자이너들은 평면재단에 익숙한 현재의 패턴사들이 입체재단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패턴사들은 현재 본인이 입체재단법에 익숙한 편은 아니나 도입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들의 생산형태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생산물량을 축소하면서 대량생산에서 소량생산으로 전향하고 있음(66%)에도 여전히 다품종 생산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많게 나타났으며 (83%), 개발디자인 수도 시즌 당(6개월 단위) 평균 400벌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신제품에 대한 기밀유지나 품질유지 면에서 대부분의 미시즌 브랜드들이 패턴을 포함한 샘플제작은 자사 안에서만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83%), 패턴실의 평균 인원이 2-3명임을 고려할 때, 업무에 따른 인원의 비효율적 관리가 상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 패턴실에서는 보다 나은 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한점

국내 패턴제작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국 형 패턴제작방식을 도입하여 전근대적인 구조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에서의 패턴제작은 평면재단, 입체재단, CAD의 복합적 사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입체재단의 도입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나, 본 연구의 조사에서 입체재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브랜드들의 패턴만족도가 입체재단을 사용한 브랜드보다 낮으며, 더 나아가 입체재단을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들의 디자이너들의 패턴만족도가 패턴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타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입체재단의 도입에 대해 본 논문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브랜드들은 실무진 뿐 아니라 경영진까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현실 여건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에서조차도 패턴사에게 부과된 작업량이 너무 과중 되어 장기간 지속에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선진국 형 패턴제작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다품종 생산체제, 한정적인 개발시즌, 패턴실의 비효율적 인원체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부적절한 품질의 마네킹 같은 구조적 모순점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국내 교육체제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패션교육이 패턴을 아는 디자이너와 디자인을 아는 패턴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실무위주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학과과정이 수립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